

11-01

통권 7호



환경-HRI



대한민국 경제 행복 지수

2011년 1월 20일

■ HRI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 제 7회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1
2.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	6
3. 기획 조사 결과	22
4. 경제적 행복지수의 종합적 시사점	28

○ 경제적 행복지수 종합 평가

- 2010년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과 고용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실물-체감 경기 간 격차로 2010년 하반기 경제적 행복지수는 42.7을 기록하며 지난 조사(2010년 6월)보다 0.5p 상승하는데 그침
 - 각 항목별 수치들은 일자리,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이 크게 개선되었고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은 상승하고 경제적 불안은 하락하여 경제적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전반적 행복감은 소폭 하락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으나 전기대비 상승폭(1.4p)은 지속적으로 감소
- 4회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던 여성의 행복지수는 하락한 반면, 남성은 상승하여 남녀간 행복감 격차가 크게 줄어들음
 - 그러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에서는 여성은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인 반면 남성은 전기대비 하락함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 : 대구에 거주하는 대졸 이상 전문직의 미혼 20대 여성으로 추정

○ 부문별 경제적 행복지수

- 지역별 : 전국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소폭 상승세 속에서 대구(46.7)가 가장 높았음
 - 지역별 평균 경제적 행복지수가 2010년 상반기 42.2에서 하반기 42.7로 0.5p 상승하였음
 -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는 수출, 고환율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입의 수혜가 있었던 지역인 대구(46.7), 충북(45.4), 서울(44.8), 제주(44.3)의 행복지수가 높았고 안보 불안 등으로 강원도의 경제적 행복감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직업별 : 경제적 안정성이 높은 전문직과 공무원의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경기 회복세로 자영업자의 행복지수도 상승
 - 직업별 추이를 보면, 전문직이 전기대비 크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경제적 행복지수는 여전히 가장 높았음
 - 한편,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는 반면, 기타/무직군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

- 한편, 전문직, 공무원은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유지되었으나 기타/무직군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저소득층 무직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임
- **연령별 : 50대 이상 고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낮고, 특히 60대 이상은 전기대비 큰 폭으로 하락**
 -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가장 높았음. 반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던 60대 이상의 행복지수가 크게 낮아져 50대 이상 고령층의 경제 행복감이 낮음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에 있어서도 20대가 크게 상승하면서 가장 높았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불안해했으며,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소득 및 자산별 : 고소득·고액 자산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상승하였으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중립적 자세를 보임**
 -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일수록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았고 전기대비 행복감도 상승하였으나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하락한 반면, 중위소득자의 기대감은 상승
 - 자산별로는 부동산 경기 안정과 주식시장 상승 등으로 2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크게 높아짐
- **학력별 : 고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고 소폭 상승한 반면, 고졸 이하 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하락**
 -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모두 상승하였고, 미래 경제 행복 예측 지수도 대학원졸 이상의 경우 크게 높아짐
 - 반면, 3회 연속 상승했던 고졸 이하의 행복지수가 이번 조사에서는 하락하였고,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도 낮아져 경기 회복이 고학력자의 경제 상황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혼인상태별 : 미혼, 기혼자의 행복감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혼자, 사별자는 모두 행복지수가 크게 하락**
 - 미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45.8로 가장 높고, 기혼자도 42.4로 0.3p 상승하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

○ 기획조사 결과

- 최근 실물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약 89%가 실질적인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원인은 일자리와 소득 감소, 부동산·주식 등의 자산 가치 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추정
 - 또한, 실질적 경기 회복은 2012년 이후로 보는 보수적인 시각이 우세
- 우리 국민들은 2011년 국내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물가 급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남북관계 악화 등을 지적함
- 한편, 실물-체감경기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생활물가 안정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의 지속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이 필요

○ 정책적 시사점

- 첫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함
 -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무직자, 고령자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둘째, 지표 경기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함에 따라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요구됨
 - 특히, 생활 물가 관리와 2011년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
- 셋째, 광역경제권별 특화 발전을 통해 지자체별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넷째,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남북관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교류 협력이 재개해야 함
- 다섯째, 제 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고령자의 행복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

제7회 HRI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결과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 경제적 행복지수의 정의

- 경제적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함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EHI(Economic Happiness Index)로 명명

○ 경제적 행복지수 작성의 목적

- 경제적 행복의 의미를 정의하고, 우리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일정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관련된 경제·사회 정치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2007년 12월부터 반기별로 조사 발표

○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 요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 종합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함

<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

하위 지수	이론 및 근거	내용
경제적 안정 지수	Maslow(1934) Need theory	어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지 않음
경제적 우위 지수	Frank Robert(1986)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다름
경제적 발전 지수	Daniel Kahneman(1979) Prospect theory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경제적 평등 지수	Veenhoven(2006) Inequality-Adjusted Happiness	개인의 경제적 행복은 소속 집단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에 의해 차이를 나타냄
경제적 불안 지수	Okun(1976) Misery Index	물가, 실업률 등 외부 요인이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작용을 함

○ 경제적 행복지수의 계산 방식

- 경제적 행복지수(EHI)는 '5개 하위지수' 와 '전반적 행복감' 의 종합으로 이루어짐
 - 5개 요소 하위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 중립 50점, 부정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점수임
 - 전반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의 정도를 직접 물어서,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100점, 보통이다 50점,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 경제적 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EHI = \frac{\frac{\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textcircled{4} + \textcircled{5}}{5} + \textcircled{6}}{2}$$

○ (경제적 행복 예측) 미래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즉 경제적 행복 예측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

- 경제적 행복지수와는 별도로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독립된 별도 문항을 측정하여 지수화 하고자 함
 -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에 대하여 질문하여, ‘그렇다’와 ‘아니다’의 비율의 차에 100을 더하여, 10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BSI 산출방식과 동일)
 - 예로써 ‘예’가 60% 이고 ‘아니오’가 40% 이면 $60 - 40 = 20$ 에 100을 더하여 120이 지수가 됨
 - 경제적 행복예측은 최소 0점에서 최대 200점, 중간값 100점임

○ 경제적 행복지수의 설문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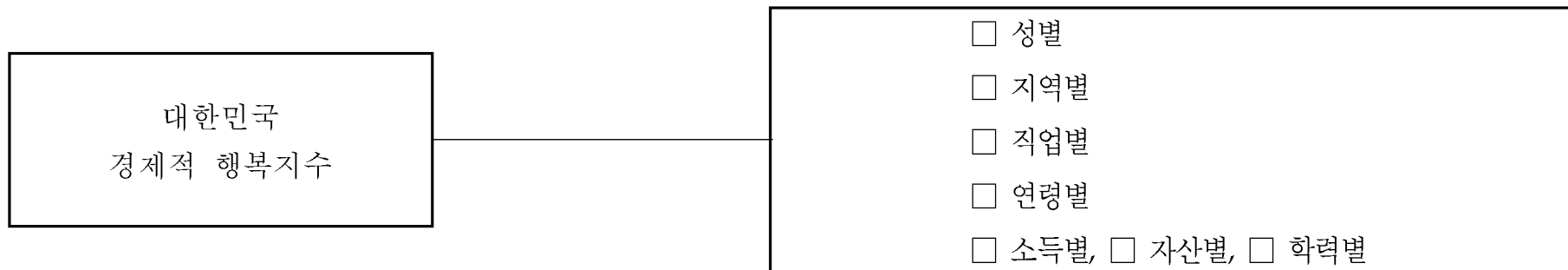
구분		질문	답변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① 경제적 안정	나(또는 귀댁의 가장)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	(1)그렇다 (2)반반이다 (3)아니다
	② 경제적 우위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다 최근 6개월간 경제적 열등감으로 마음 상한 경험이 있다.	
	③ 경제적 발전	나의 소득, 자산 등 경제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다.	
	④ 경제적 평등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 질 것이다.	
	⑤ 경제적 불안	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 내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⑥ 전반적 행복감	나는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경제적 행복 예측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1)예 (2)아니오

○ 조사의 개요

- 조사 기간 : 2010년 11월 22일 ~ 12월 3일(13일간)
- 조사 주최 : 한국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
- 조사 방식 :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 전화설문을 통해 전국 1,025개 샘플을 수집
- 조사 대상 : 전국의 20세 이상의 경제활동 중인 성인 남녀 (학생 제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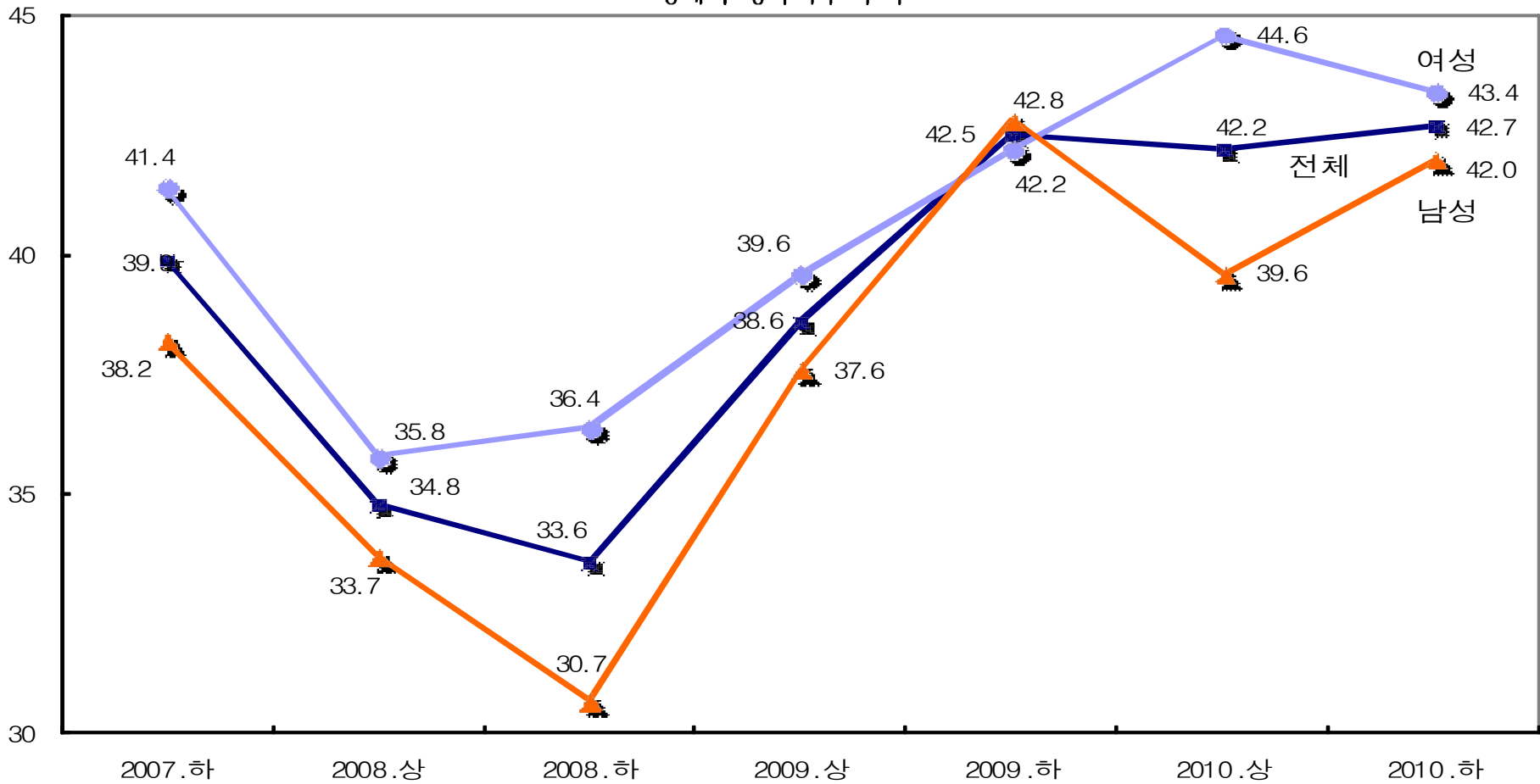
○ 결과 분석



2.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

- (종합평가) 경제적 행복지수가 국내 경제의 6%대의 높은 성장률과 고용 증가세에도 실물-체감 경기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42.7로 지난 조사(2010년 6월)보다 0.5p 상승하는데 그쳤고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국민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기대비 상승폭(1.4p)은 지속적으로 축소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2009년 플러스 성장을 보이면서 국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경제적 행복지수는 4~5회까지 2회 연속 상승하였으나 남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건 등으로 2010년 상반기 6회 조사에서는 42.2로 소폭 하락. 2010년 하반기 7회 조사에서는 국내 경제의 높은 성장률과 고용 증가세로 42.7로 0.5p 상승하였으나 전년말대비로는 하락
 - 유로존 재정위기 지속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대내외적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빠른 경제 회복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지속으로 인한 주식 시장 상승, 낮은 이자율, 고용시장 회복 등이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소폭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급등하는 물가, 전월세 상승, 일자리 및 소득 양극화 등은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여 실물 경기지표 상승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를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한편, 남녀별로 보면 금융위기 이후 4회 연속 상승하던 여성의 행복지수가 43.4로 전기대비 1.2p 하락한 반면, 남성은 2.4p 상승하면서 6회 조사(2010년 6월)에서 5.0p로 확대되었던 남녀간 격차가 1.4p로 크게 줄어들음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5회 조사부터 3회 연속 상승하였고, 금번 조사에서도 전기대비 1.2p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미래 경제 사정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은 유지되고 있으나, 상승폭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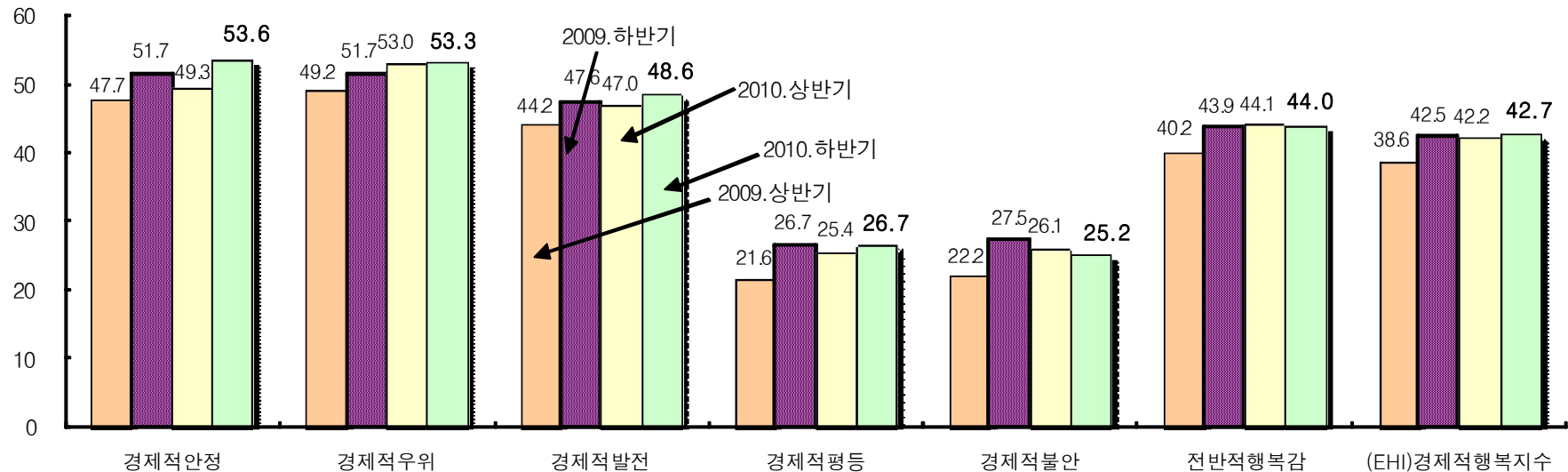
< 경제적 행복지수 추이 >



○ (항목별) 경제적 행복지수가 6회 조사(2010년 6월) 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구성 요소의 각 항목별 수치들도 대부분 개선되면서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우선, 경제적 행복지수가 6회 조사 보다 0.5p 상승하며 42.7을 기록함. 각 항목별로는 일자리,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이 4.3p 상승하면서 크게 개선되었고, 경제적 상위 0.3p 경제적 발전 1.6p, 경제적 평등 1.3p 상승하고 경제적 불안은 0.9p 하락하면서 경제적 만족도의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전반적 행복감은 0.1p 하락하였음

< 항목별 경제적 행복 지수 비교 >



- (경제적 행복 예측) 실물 경기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2010년 하반기에 이어 2011년 상반기에도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2009년 하반기 이후 상승폭은 크게 축소됨
- 미래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가 전기대비 1.2p 상승한 147.6를 기록하면서 미래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유지됨¹⁾
 - 2010년 상반기 조사에서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0.3p 하락한 42.2를 기록했으나 미래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 지수는 2.2p 상승하여 146.4를 기록하면서 향후 경제적 행복감은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었음
 - 이어, 2010년 하반기 조사에서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0.5p 하락한 42.7를 기록하였고 미래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 지수 역시 1.2p 상승한 147.6 기록하여 향후 경기 회복세 지속으로 경제적 행복감도 지속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
 - 2010년 하반기 유로존 재정위기 지속, 환율전쟁 등의 대외적 요인과 물가 불안, 북한 리스크 등 대내적 불안 요인에도 견고한 경제회복이 이어지면서 경제적 행복감은 소폭 상승
 - 아울러, 2011년에도 국내 경기 지표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미래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내외적 불안 요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추이 >

	2007. 하반기	2008. 상반기	2008. 하반기	2009. 상반기	2009.하반기	2010.상반기	2011.상반기
남 성	135.1	115.0	121.6	127.8	139.8	142.8	140.6
여 성	137.0	131.1	129.2	129.6	148.2	149.6	153.8
전 체	136.0	123.1	125.6	128.8	144.2	146.4	1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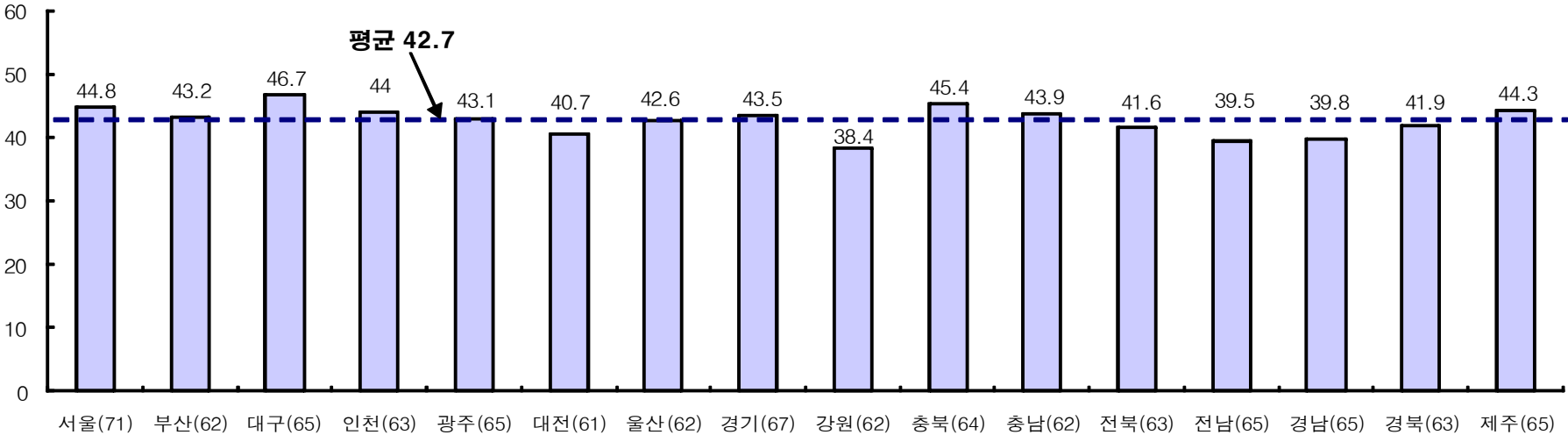
1)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0점 만점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100보다 커질수록 미래의 경제적 행복을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음으로 해석함

○ (지역별) 전국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 평균 경제적 행복지수는 2010년 상반기 42.2에서 하반기에는 42.7로 0.5p 상승하였음
 - 지역 평균 대비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광역시와 경기, 충북, 충남, 제주도로 나타남
 - 한편, 서울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반기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나, 평균대비 2.1p 높고 전체 3위를 기록하였으며, 5대 광역시도 대구, 인천이 5.9p, 5.5p 상승하면서 경제적 행복감이 크게 개선된 반면 광주, 대전은 소폭 감소
- 대구의 경기 회복 기조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대구의 산업생산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된 가운데 수출도 전년 동기대비 31.9% 증가. 한편, 소비 심리는 회복세를 보였고, 실업률도 하향 안정화 된 것 등이 경제적 행복지수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
- 수출 경기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인 대구, 충북, 서울, 제주의 행복지수가 높았고 이상 기후, 안보 불안 등으로 강원도의 경제적 행복감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대구에 이어 충북 45.4, 서울 44.8, 제주 44.3 순으로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지난 조사에서 36.6으로 가장 낮은 행복감을 보였던 강원도는 1.8p 상승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도 가장 낮은 행복지수를 보였고, 전남, 경남도 낮은 수준을 보임
-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은 지역은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내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
 - 대구가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조사에서도 163.0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행복지수가 높았던 서울도 157.8로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냄
 - 한편, 경제적 행복지수가 낮았던 강원과 전남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각각 151.6, 169.2로 매우 높게 나타나 향후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임

<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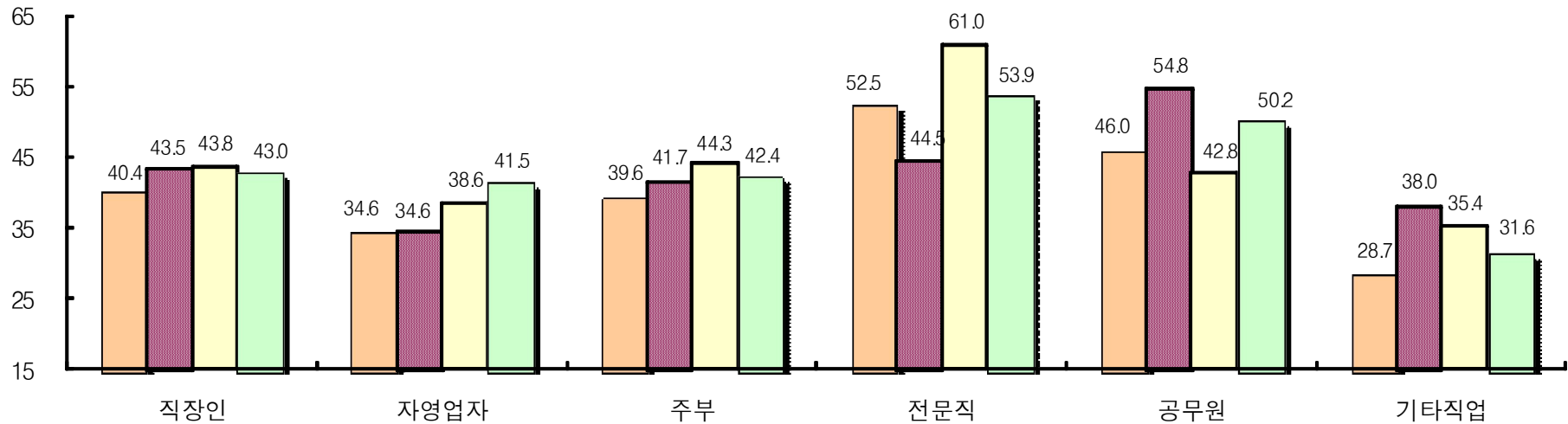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경제적 안정	60.6	52.0	52.7	50.4	51.5	53.3	56.5	51.9	52.4	60.2	54.4	45.6	50.8	47.3	60.7	56.2
경제적 우위	54.6	52.0	61.9	54.0	54.2	51.6	56.5	50.7	48.8	55.5	55.6	52.8	50.0	49.6	53.6	51.5
경제적 발전	50.4	48.4	54.2	45.2	47.7	41.8	48.4	43.7	51.6	47.7	50.8	53.6	52.3	43.8	47.6	50.8
경제적 평등	24.6	33.1	25.8	26.6	19.2	25.8	31.9	25.0	21.8	33.6	21.8	24.6	16.2	32.7	31.0	33.5
경제적 불안	29.2	33.1	22.3	26.2	27.3	21.7	27.0	28.4	23.8	30.9	18.1	13.1	14.2	28.8	33.7	24.2
전반적 행복감	45.8	42.7	50.0	47.6	46.2	42.6	41.1	47.0	37.1	45.3	47.6	45.2	42.3	39.2	38.9	45.4
경제적 행복지수	44.8	43.2	46.7	44.0	43.1	40.7	42.6	43.5	38.4	45.4	43.9	41.6	39.5	39.8	41.9	44.3
지역별 순위	3	8	1	5	9	13	10	7	16	2	6	12	15	14	11	4
경제적 행복 예측	157.8	154.8	163.0	142.8	147.6	144.2	145.2	149.2	151.6	146.8	135.4	149.2	169.2	123.0	146.0	132.4



- (직업별) 6회 조사에서 크게 하락했던 공무원의 행복지수가 회복되었고, 국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의 행복감도 상승함. 하지만, 지난 조사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던 전문직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하락
 - 직업별로 보면, 전문직과 공무원의 경제적 만족도가 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장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직업군은 전문직으로 전기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53.9로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고, 공무원도 7.4p 상승하며 6회 조사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경제적 행복감이 개선됨
 - 아울러,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도 전문직이 전기대비 8.6p, 공무원도 23.8p 상승하면서 이 두 직군은 경기 회복에 따라 미래 경제 상황을 보다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의 행복지수가 높아진 반면, 기타/무직군의 행복감은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음
 -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2.9p 상승한 반면, 기타/무직군은 3.8p 하락하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
 - 그러나, 2011년 향후 지속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내수 수요 창출의 부진 등으로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자영업자의 경우 8.8p, 기타/무직군도 30.4p 하락하여 이들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직업²⁾별 경제적 행복지수 >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전문직		공무원		기타/무직	
경제적 안정	53.4	3.4	46.7	3.9	53.2	▽0.1	69.4	0.2	73.2	12.5	41.9	5.8
경제적 우위	54.2	0.7	46.6	▽3.4	56.2	2.0	75.0	0.0	61.0	6.2	42.4	▽7.1
경제적 발전	55.7	▽0.4	45.4	2.9	39.3	▽4.6	55.6	▽7.9	62.4	14.1	21.2	▽7.6
경제적 평등	26.9	4.2	30.3	2.0	22.5	▽4.7	30.6	▽4.0	23.4	3.8	33.5	4.8
경제적 불안	26.4	▽1.1	25.2	0.7	22.1	▽4.2	30.6	▽9.8	29.4	3.8	20.3	▽2.9
전반적 행복감	42.8	▽2.4	44.1	4.1	46.1	▽1.5	55.6	▽9.8	50.5	5.6	31.4	▽4.6
경제적 행복지수	43.0	▽0.8	41.5	2.9	42.4	▽1.9	53.9	▽7.1	50.2	7.4	31.6	▽3.8
경제적 행복 예측	159.2	3.6	135.6	▽8.8	143.4	▽0.4	177.8	8.6	157.8	23.8	101.6	▽30.4



2) 각 항목의 우측 칸은 2009년 상반기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

○ (연령별) 50대 이상 고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낮음

- 연령대를 기준으로 20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과 30대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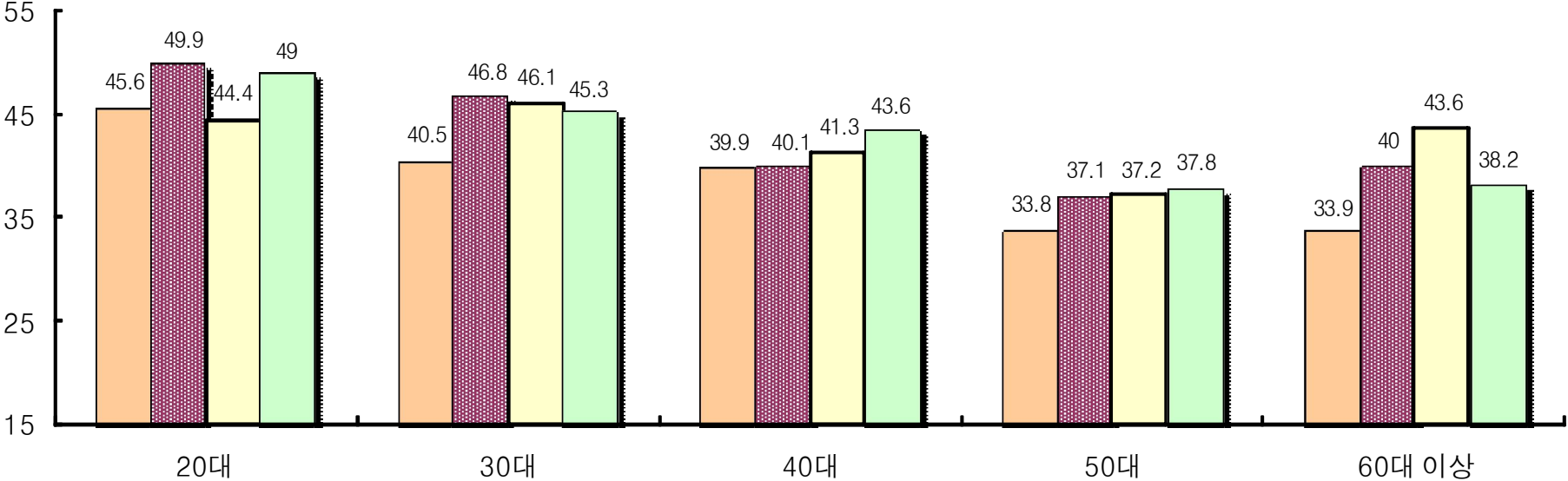
- 지난 조사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던 30대는 전기대비 0.8P 하락하면서 49.0을 기록한 20대의 행복지수가 재차 가장 높아짐. 반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던 60대의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5.4p 하락하며 크게 낮아져 50대 이상 고령층의 경제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보임
- 고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낮은 원인은 노인 복지 서비스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임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대에서 크게 상승하면서 가장 높았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불안해했으며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20대의 경우 전기대비 14.8p 상승한 172.8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107.6으로 전기대비 20.4p 하락하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특히, 20대는 경제적 행복지수(4.6)와 미래 예측 지수(14.8) 모두 크게 상승하면서 미래 경제 상황에도 긍정적인 시각이 반영되었으나 40대 이상에서는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연령별 경제적 행복지수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제적 안정	58.1	7.9	56.6	2.2	55.1	4.0	50.0	8.7	45.2	▽4.6
경제적 우위	56.8	3.4	55.4	0.8	52.6	▽0.4	52.0	2.2	49.2	▽6.3
경제적 발전	61.6	0.0	59.8	1.3	52.0	▽7.1	36.2	0.4	26.7	▽7.8
경제적 평등	29.6	4.8	22.3	▽1.0	25.4	▽1.4	27.1	2.3	35.3	▽1.0
경제적 불안	30.5	4.0	28.8	1.0	25.0	1.8	21.0	▽5.5	20.0	▽7.8
전반적 행복감	50.8	5.8	46.0	▽1.8	45.2	1.4	38.2	▽1.3	41.2	▽4.1
경제적 행복지수	49.0	4.6	45.3	▽0.8	43.6	2.3	37.8	0.6	38.2	▽5.4
경제적 행복 예측	172.8	14.8	168.2	4.4	141.2	▽4.8	137.8	7.2	107.6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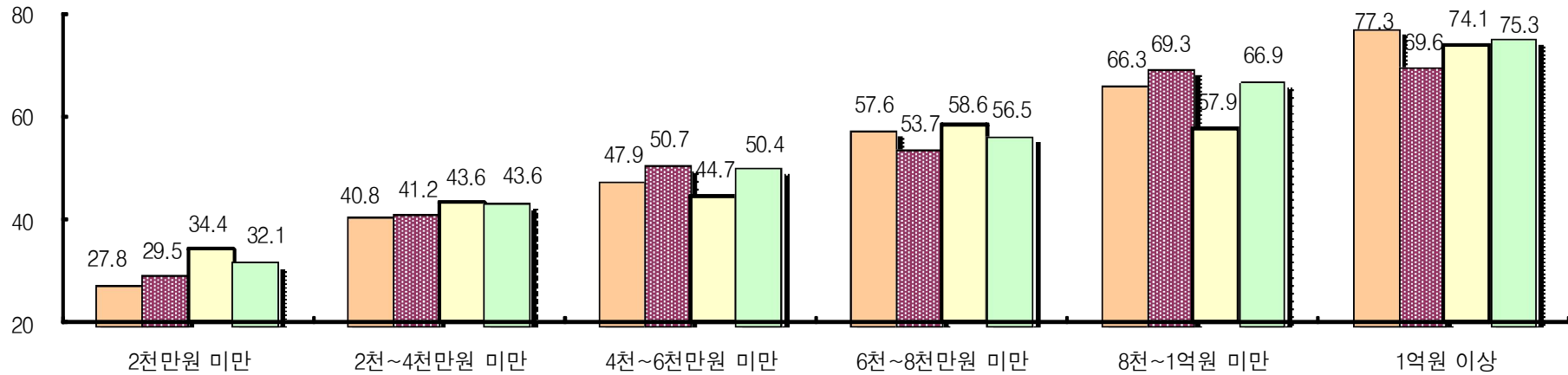
○ (소득 및 자산별) 고소득·고액 자산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상승하였으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중립적 자세를 보임

- 소득별로는 고소득자일수록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았고 전기대비 행복감도 상승하였으나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하락한 반면, 중위소득자의 기대감은 상승

- 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는 연간 2천만 원 미만 저소득자와 6~8천만원 소득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하락하였으나, 4~6천만 원 미만과, 8~1억 원 미만 소득자 및 1억 원 이상 소득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상승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의 경우에는 연간 8~1억 원 소득의 고저위 소득자들이 전기대비 21.0p, 1억 원 이상 소득자는 4.4p 하락하였고, 연간 4~8천만원 미만의 중위 소득자들은 각각 5.2p, 4.6p 상승하여 고소득자들에 비해 미래 경제를 더욱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 >

	2천만원 미만		2천~4천만원 미만		4천~6천만원 미만		6천~8천만원 미만		8천~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35.3	1.5	57.3	4.9	66.2	8.1	72.4	▽3.0	86.8	10.1	90.0	▽4.4
경제적 상위	39.8	▽4.3	54.4	2.7	61.6	2.2	75.4	▽2.7	94.1	9.1	86.7	0.7
경제적 발전	32.8	▽2.7	52.5	2.1	59.6	8.6	63.6	▽1.0	79.4	11.1	71.7	▽14.4
경제적 평등	28.4	1.9	24.5	0.5	28.7	3.8	25.4	▽1.9	23.5	3.5	36.7	▽3.9
경제적 불안	20.8	▽2.1	24.4	▽0.2	29.5	▽1.2	27.2	▽9.0	47.1	23.9	51.7	▽9.4
전반적 행복감	32.9	▽2.7	44.6	▽0.2	51.7	6.9	60.3	1.2	67.6	7.6	83.3	5.5
경제적 행복지수	32.1	▽2.3	43.6	0.0	50.4	5.7	56.5	▽2.1	66.9	9.0	75.3	1.2
경제적 행복 예측	134.2	3.4	147.6	▽2.8	160.4	5.2	167.6	4.6	164.8	▽21.0	173.4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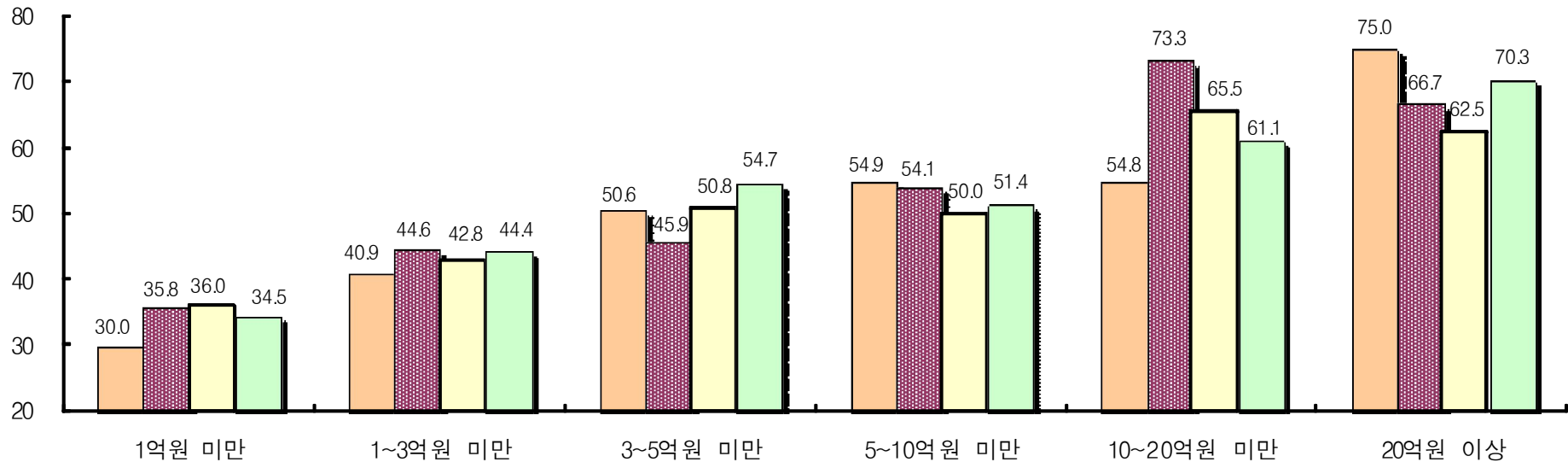


- 자산별로는 부동산 경기 안정과 주식시장 상승 등으로 2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크게 높아짐

- 자산별 경제적 행복지수는 1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 일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20억 원 이상이 70.3으로 가장 높았고, 10~20억 원 이상도 61.1로 2위를 기록한 반면, 1억 원 미만의 소액 자산가는 34.5로 전기대비 1.5p 하락하면서 경제적 행복 지수가 가장 낮았음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10~20억 원 미만의 자산가의 경우 전기대비 7.8p 상승하였고, 3~5억 원의 중위 자산가들도 19.4p 크게 높아지며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냄

< 자산별 경제적 행복지수 >

	1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42.2	4.1	56.3	4.2	66.7	3.3	71.4	10.8	81.9	5.8	90.6	4.5
경제적 우위	40.8	▽2.5	57.3	2.6	64.9	1.0	70.6	5.5	81.9	▽1.8	96.9	2.5
경제적 발전	41.3	0.2	52.4	3.4	54.6	2.0	53.6	▽0.5	61.1	5.7	68.8	7.7
경제적 평등	26.2	2.9	25.6	0.2	30.5	4.5	29.1	▽1.4	22.2	▽16.4	21.9	▽15.6
경제적 불안	21.8	0.0	26.3	▽0.4	30.1	▽2.0	23.8	▽9.5	30.6	▽10.7	50.0	13.9
전반적 행복감	34.5	▽2.9	45.3	1.3	59.9	4.6	53.2	1.8	66.7	▽7.2	75.0	8.3
경제적 행복지수	34.5	▽1.5	44.4	1.6	54.7	3.9	51.4	1.4	61.1	▽4.4	70.3	7.8
경제적 행복 예측	136.6	▽4.0	153.8	1.6	158.8	19.4	148.4	▽17.8	155.6	7.8	175.0	0.0



○ (학력별) 고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고 소폭 상승한 반면,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하락

-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 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크게 떨어짐

· 대졸, 대학원졸 고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45.7과 53.3으로 전기대비 각각 1.8p, 0.8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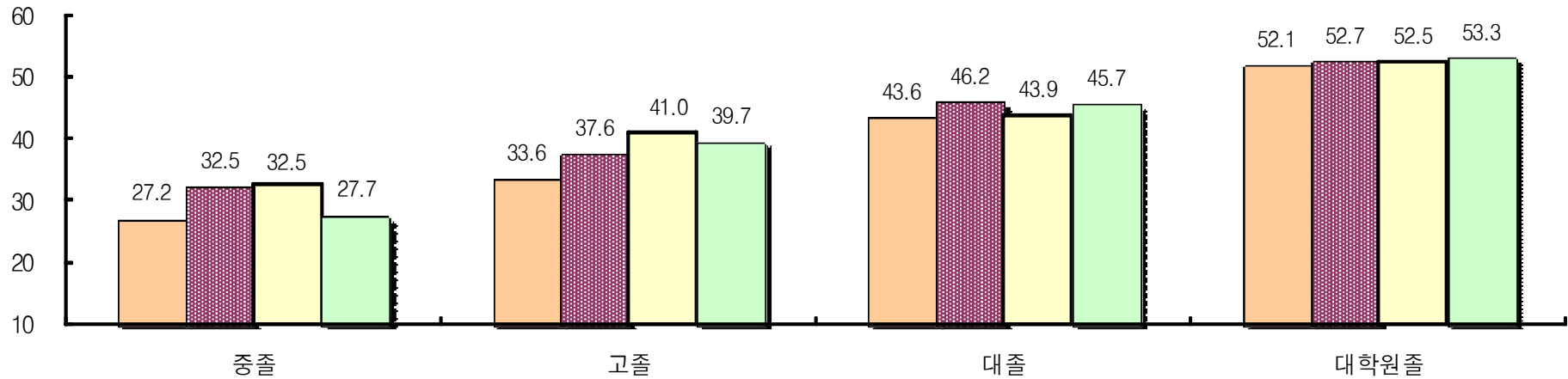
· 반면, 3회 연속 상승했던 고졸 이하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금번 조사에서는 각각 1.3p(고졸), 중졸도 4.8p 하락

- 대학원 졸업자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

· 지난 조사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대학원 졸업자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가 다시 크게 상승한 가운데 중졸 이하는 15.8p 하락하면서 크게 낮아져 경기 회복이 저학력자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학력별 경제적 행복지수 >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점수	변동	점수	변동	점수	변동	점수	변동
경제적 안정	30.7	▽1.0	48.0	2.0	58.4	4.7	71.2	7.9
경제적 상위	34.0	▽9.0	49.4	▽0.5	57.1	0.8	66.0	5.3
경제적 발전	21.7	▽8.9	41.7	0.7	55.3	1.9	58.5	3.9
경제적 평등	32.2	4.7	28.2	▽2.0	25.6	3.1	21.2	0.3
경제적 불안	13.3	▽5.1	23.4	▽1.8	27.6	0.0	28.3	▽6.4
전반적 행복감	28.9	▽4.9	41.2	▽2.6	46.6	1.3	57.5	▽0.7
경제적 행복지수	27.7	▽4.8	39.7	▽1.3	45.7	1.8	53.3	0.8
경제적 행복 예측	110.8	▽15.8	140.6	▽1.9	154.4	▽0.8	166.0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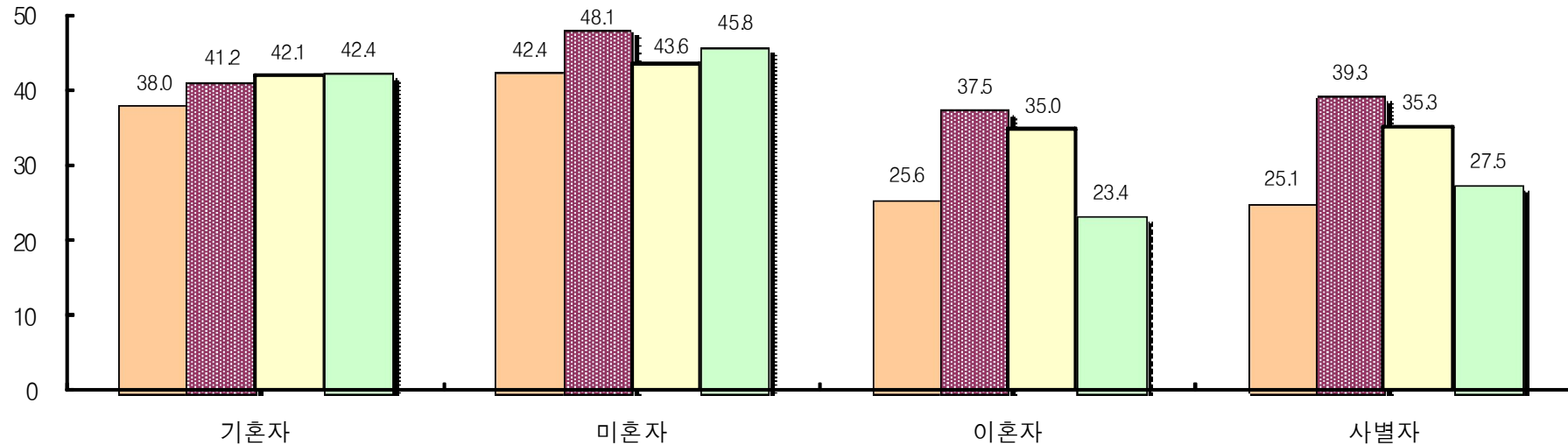


○ (혼인 상태별) 미혼자와 기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 소폭 상승

- 미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와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모두 긍정적이나, 이혼자 및 사별자의 경제 행복감은 크게 하락
 - 미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45.8로 가장 높고 전기대비 2.2p 상승하였고 기혼자도 42.4로 0.3p 상승하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 이혼자와 사별자는 23.4와 27.5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전기대비로는 각각 11.6p, 7.8p 큰 폭으로 하락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미혼자가 164.4로 가장 높았고 전기대비로도 11.8p 상승하며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기혼자도 142.8을 기록하며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
 - * 이혼자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지난 조사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고 금번 조사에서도 175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징을 보임. 그러나 지난 조사보다 표본수가 2배로 늘어났지만 8명으로 여전히 적음

< 혼인상태별 경제적 행복지수 >

	기혼자		미혼자		이혼자		사별자	
경제적 안정	53.8	4.0	56.0	7.3	28.1	▽3.2	20.8	▽18.9
경제적 우위	54.1	1.1	52.9	▽1.0	31.3	0.0	39.6	▽7.5
경제적 발전	46.7	2.0	58.2	0.2	31.3	6.3	14.6	▽8.9
경제적 평등	26.0	0.6	28.7	4.3	25.0	25.0	25.0	1.5
경제적 불안	24.2	▽1.1	29.7	0.6	25.0	0.0	8.3	▽19.6
전반적 행복감	43.8	▽0.8	46.7	3.5	18.8	▽18.7	33.3	▽4.9
경제적 행복지수	42.4	0.3	45.8	2.2	23.4	▽11.6	27.5	▽7.8
경제적 행복 예측	142.8	▽2.2	164.4	11.8	175.0	75.0	116.6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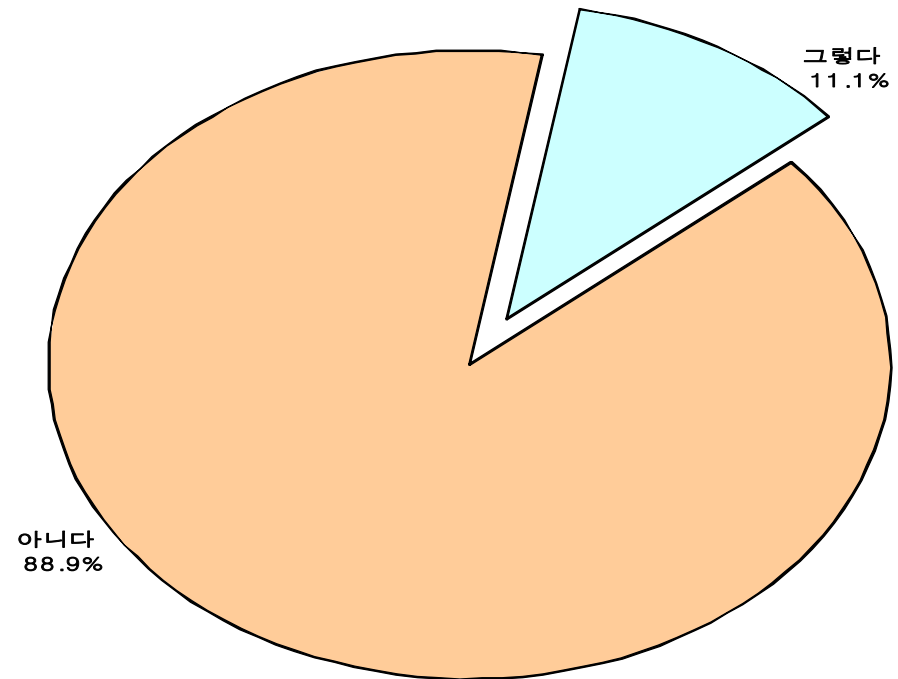


3. 기획 조사 결과

○ 최근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 경기 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제 지표상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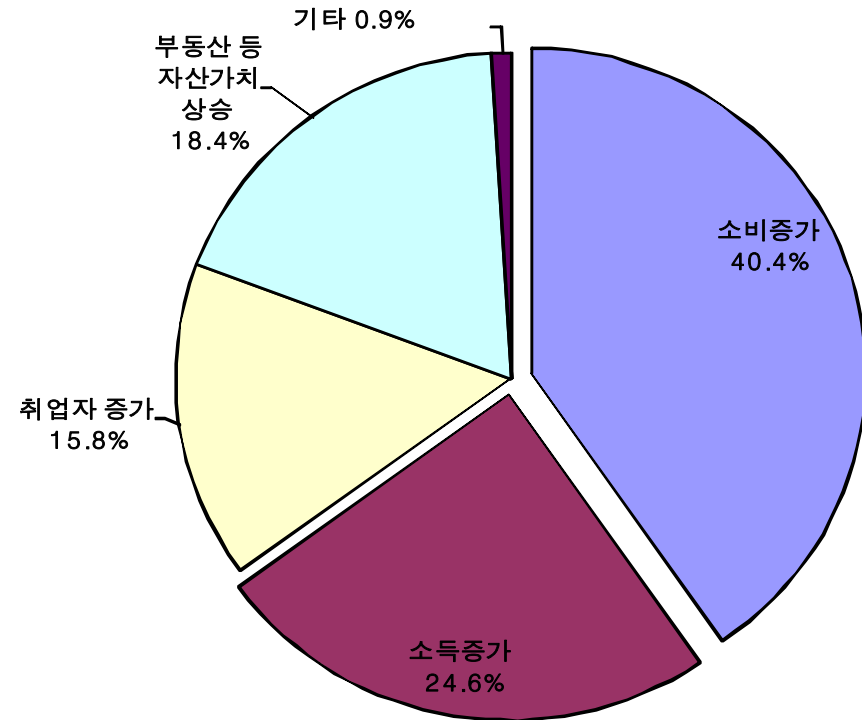
- 전체 1,024명의 응답자 중에서 910명 (88.9%)이 최근 국내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114명 (11.1%)만이 실물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0년 6%대의 높은 GDP성장률과 3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실업률 감소 등 국내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 물가 및 전세 가격 급등,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질적인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 회복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11.1%는 소비 및 소득증가를 주요인으로 선택

- 경기 회복감을 느낀다면 어느 부문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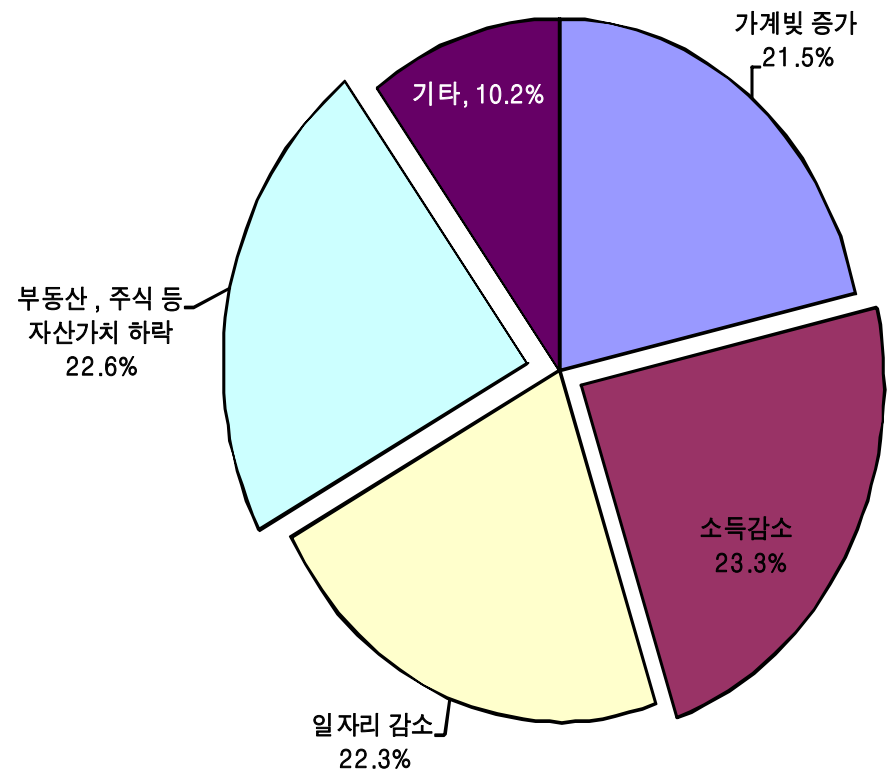
- 경기 회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114명의 응답자 중에서 46명(40.4%)이 소비증가, 28명(24.6%)은 소득 증가로 인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함
- 전체 응답자 중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 취업자 증가, '기타' 의견이 각각 18.4%, 15.8% 및 0.9%로 조사되어 경기 회복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이 경기 회복감을 느끼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경기 회복과 고용시장 개선으로 가계소득이 4분기 연속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소비 증가, 주식 시장 상승,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이 경기회복감을 느끼고 있는 응답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



○ 일자리와 소득 감소, 자산가치 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이 경기 회복 체감을 저해하는 원인임

-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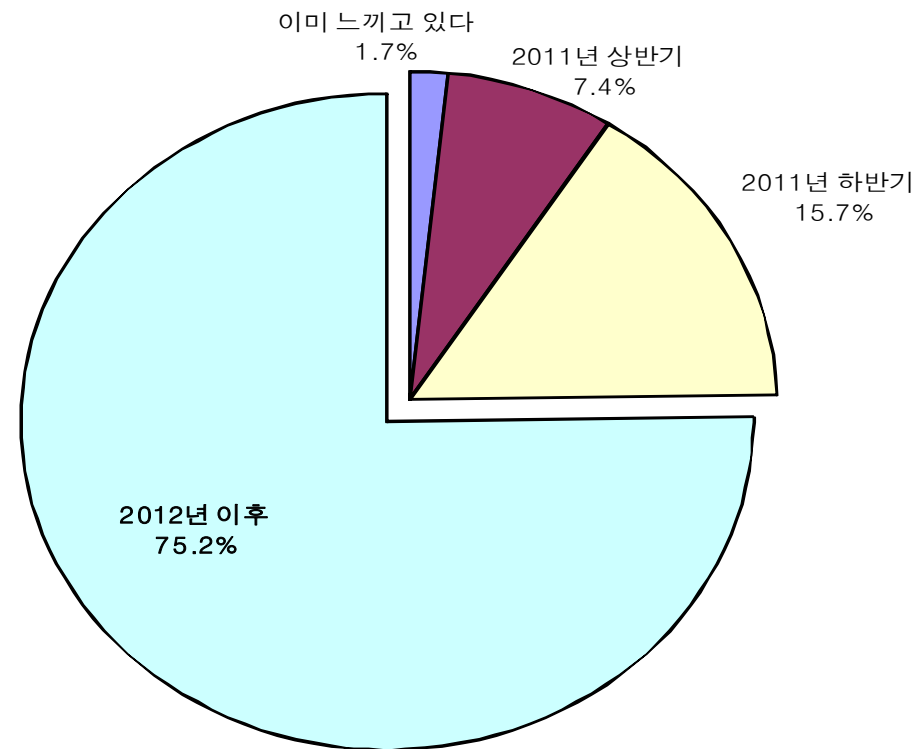
-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한 91명 중에서 212명(23.3%)이 소득 감소가 경기 회복감을 가장 저해하는 원인으로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자산가치 하락 (22.6%)', '일자리 감소 (22.3%)', '가계빚 증가(21.5%)'가 비슷한 비중으로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됨
- 경기 회복감을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는 원인은 일자리 및 소득과 연관되었고,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등과도 연관성이 유사하게 나타남. 최근 실업률 감소에도 일자리 창출이 일부 산업 부문에만 한정되고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2012년 이후에나 우리나라 경기가 실질적인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는 보수적인 전망이 우세

- 언제쯤 체감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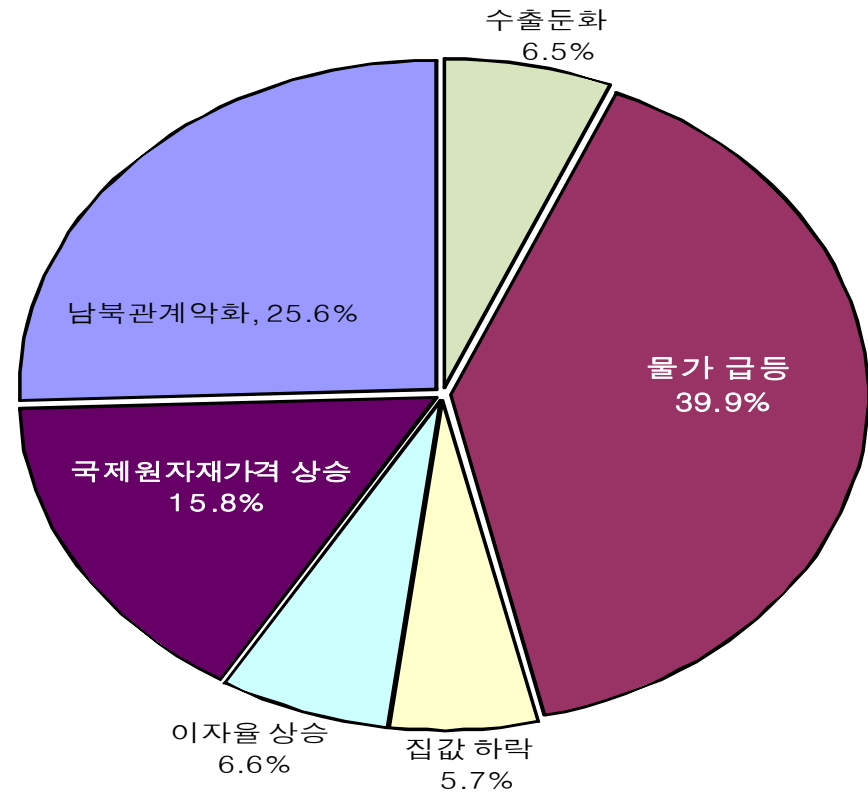
- 전체 1,024명의 응답자 중에서 770명 (75.2%)이 2012년 이후에나 우리 경제가 나아져 가계의 경제 상황도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2011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및 '이미 느끼고 있다'은 각각 15.7%, 7.4% 및 1.7%로 이들은 2012년은 되어야 체감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 2010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 기조와 기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상승, 소득 양극화, 고환율 등으로 인한 실물경기와 체감경기의 격차로 본격적인 국내 경제 회복은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바라보는 보수적인 시각이 우세함



○ 물가 급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남북관계 악화 등이 2011년 국내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국내 경제의 불안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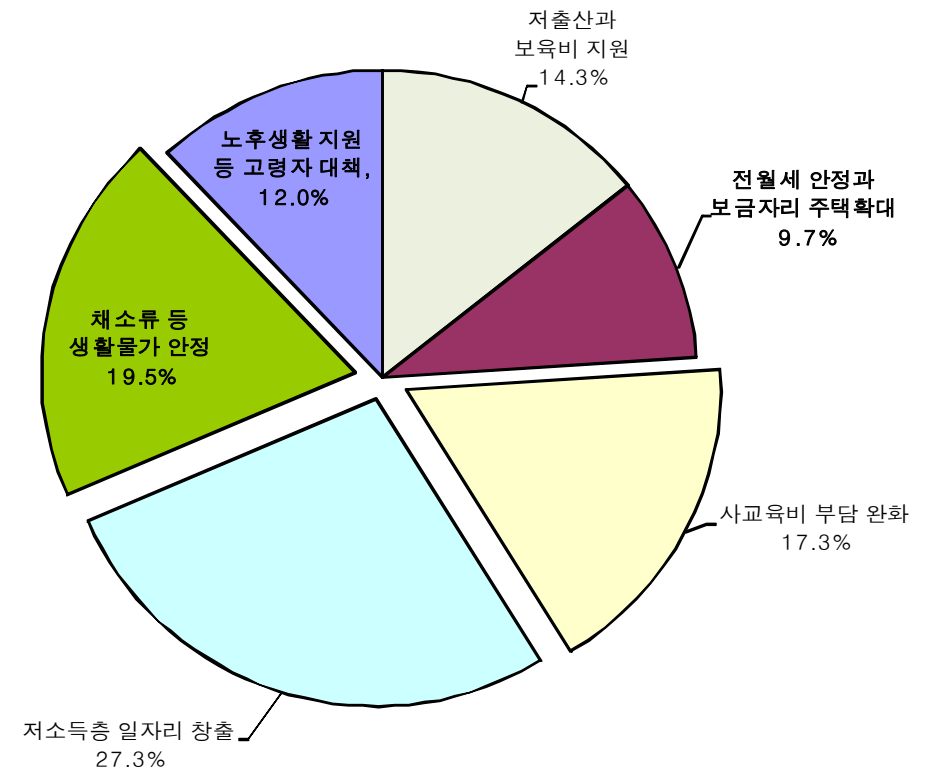
- 전체 1,022명의 응답자 중에서 408명 (39.9%)이 2011년 국내 경제 성장의 불안요인으로 물가 급등을 꼽았고, 262명(25.6%)은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중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이자율 상승', '수출둔화', '집값 하락'은 각각 15.8%, 6.6%, 6.5%, 5.7%로 하반기 국내 경기 불안요인으로 판단함
- 2011년 물가급등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과 더불어 국내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연결되어 국내 경제 성장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이며, 최근 연평도 폭격으로 더욱 악화된 남북관계도 실물·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2011년 국내 경기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됨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생활물가 안정이 2011년 정부가 가장 고려해야 할 친서민 정책과제

- 2011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친서민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 전체 1,023명의 응답자 중에서 명 (27.3%)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명(19.5%)이 채소류 등 생활물가 안정이 내년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분야라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사교육비 부담 완화', '고령자 대책', '저출산 지원', '전월세 안정과 보금자리 주택확대'를 가장 중요한 친서민 정책으로 꼽은 응답자는 각각 17.3%, 12.0%, 14.3%, 9.7%에 달함
- 우리 국민들의 경제 행복감 제고와 실물 체감경기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생활물가 안정으로 현재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고령자 대책과 저출산 지원 확대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4. 경제적 행복지수의 종합적 시사점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 2010년 12월말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원 졸 이상 학력 전문직의 미혼 20대 여성으로 추정
 - 이들의 현재 경제적인 행복과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모두 6개월 전에 비해 상승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

- 한편,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산과 소득도 낮은 저소득, 저학력의 50대 이상의 남자로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 사는 무직자로 추정됨
 - 취약 계층으로 구분되는 이들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하락하였고 전반적인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행복지수는 국내 경제의 높은 성장률과 고용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실물-체감 경기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42.7을 기록하면서 0.5p 상승에 그쳤고, 미래 경제 예측 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되고 있으나 2009년 하반기 이후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음

- 경제적 행복지수가 소폭 상승

- 남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건 등으로 2010년 상반기 6회 조사에서 42.2로 전기대비 0.3p 하락했던 경제적 행복지수가 2010년 하반기 7회 조사에서는 국내 경제의 높은 성장률과 고용 증가세에 힘입어 42.7로 0.5p 상승
 - 이는 유로존 재정위기 지속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대내외적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빠른 경제 회복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급증으로 인한 주식 시장 상승, 낮은 이자율, 고용시장 회복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개선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실물-체감 경기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경제적 행복지수의 상승폭이 제한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국내 실물경제 지표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미래에도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지되었으나 2009년 5회 조사 이후 상승폭은 계속 축소되고 있음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사교육비 부담 완화, 고령자 대책 등 친서민 정책이 강화될 때 국민들의 실물-체감경기 간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실물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득 감소, 일자리 감소, 자산가치 하락 및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가계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빠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1.7%만이 실질적인 경기 회복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75.2%는 2012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체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실물-체감경기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제고, 물가 안정, 사교육비 부담 완화, 실효성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월세 안정 등 친서민 정책 강화하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대비해야 함

○ 경제적 행복 지수의 상승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 첫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함
 -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무직자, 고령자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둘째, 지표 경기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함에 따라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요구됨
 - 특히, 생활 물가 관리와 2011년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
- 셋째, 광역경제권별 특화 발전을 통해 지자체별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넷째,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남북관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교류 협력이 재개해야 함
- 다섯째, 제 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고령자의 행복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	성	:	조 호 정	선 임 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홍 유 림	전문 연구원	(2072-6243, ylhong@hri.co.kr)